

장애인 고용 '질적 도약'...

올해 포용적 일자리 영토 확장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광주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 특성에 맞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 고용 기반 확대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장애인 고용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장애인과 사업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 직업훈련, 고용 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 운영, 사업주 대상 고용 컨설팅 등 장애인 고용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돋구고 있다.

광주지역본부는 이러한 공단의 역할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현하는 핵심 거점 기관이다.

조직은 취업지원부, 기업지원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디지털훈련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부서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장애인 고용 전 과정

현장 중심 지원 장애인 고용 기반 확대

민관 협력 확대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통해 고용 모델 제시

취업 알선 725명…대기업 취업 비중 증대

에 걸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취업지원부는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직업 능력을 고려한 상담과 취업 연계를 담당하며 기업지원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제도 안내와 환경 개선 컨설팅을 통해 고용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직무 중심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돋구고 있으며 디지털훈련센터는 정보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주력하고 있다.

2025년 광주지역본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다.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케이비개발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자회

사형 표준사업장은 모기업이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적합한 직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케이비개발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채용했으며 향후 추가 채용을 통해 고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 내부에 포용적 고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실천 사례로, 지역 내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광주시의회와 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활동을 전개하며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고용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취업 알선을 통해 총 725명의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313건은 대기업 취업으로 연결돼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 중소 사업장 중심에서 벗어나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지역본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년에는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 증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 고용 부담금 상위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확대를 중심에 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기업별 특성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청, 대학병원, 금융기관 등 광주지역 내 고용의 무불이행 기관을 중심으로 직무 발굴과 근무 환경 개선,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해 단계적인 고용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포용적 고용 문화가 지역 전반에 뿐만 아니라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장애인 고용은 지역의 미래 위한 투자”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2025년 2월 4일 부임 이후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 전반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목표로 지난 1년간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본 소회는?

-2025년은 광주지역본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책상 위 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부단히 움직인 한 해였다. 기업과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하고 장애인 한 분 한 분과 상담하며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귀 기울였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접근이 쌓여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2025년 특히 의미 있었던



성과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케이비개발과 체결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이다. 이는 단순히 고용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

고 장애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외 함께 광주시의회와 교육청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추진한 장애인 고용 촉진 활동도 지역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2026년의 중점 계획

은 무엇인가?

-올해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상위 50개 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전략적인 고용 확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청, 대학병원, 금융기관 등 고용 의무 이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 발굴과 근무 환경 개선을 병행해 단계적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겠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 고용을 의무나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 높이는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역량을 발견하고 함께 성

장하는 고용 문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자산이 된다. 공단은 앞으로도 ESG 경영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광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록 장애인 고용 기회 역시 함께 확대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병오년 적토마의 해인 2026년에는 지역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광주지역본부 역시 올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

/안태호 기자

새해엔 모두 부자되세요

희망 가득한 병오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을 책임지는
센트럴윤길중안과



진료분야 062)376-1001 광주 신세계 이마트 맞은편
(어반센트럴빌딩 2층)

謹賀新年